



Europe

Asia

North America

Oceania

Africa

South America



지역 기초자료
16-12

2016년 9월 28일

중국의 지역별 산업고도화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베이징시

이상훈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부연구위원
김주혜 동북아경제본부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연구원

중국의 지역별 산업고도화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베이징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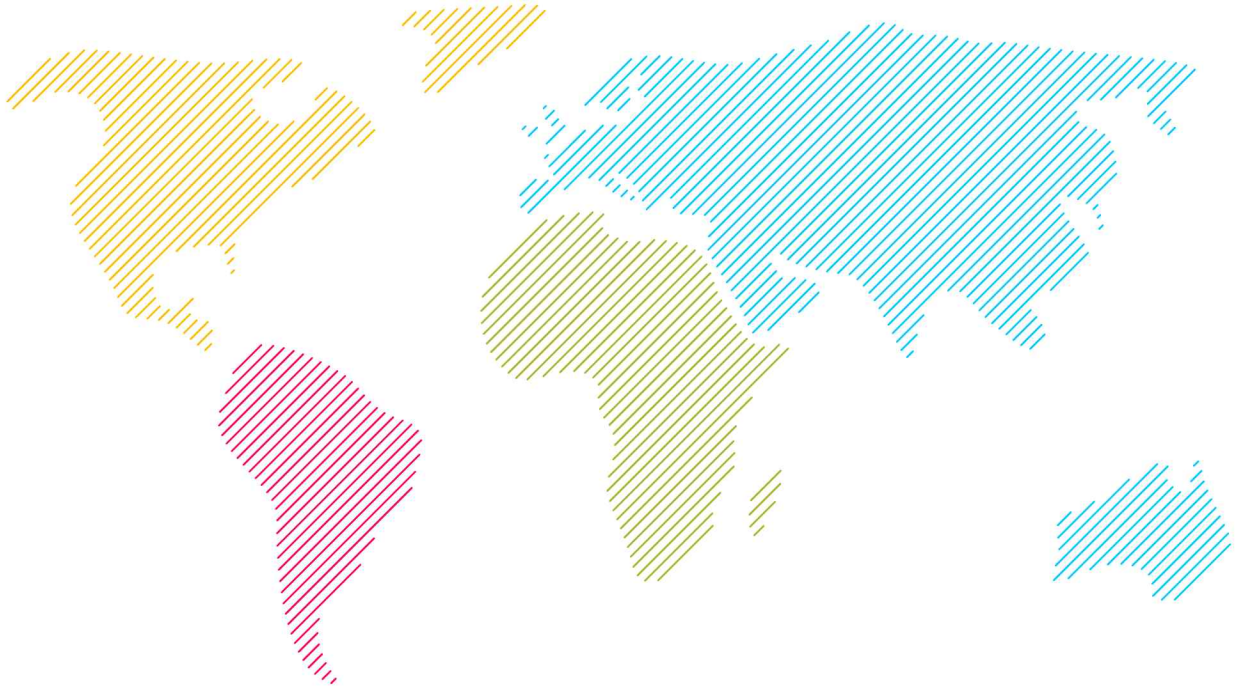
요약

- ▶ 베이징은 중국에서 GRDP 대비 3차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서비스업 주도형 경제구조가 뚜렷하게 형성
 - 베이징은 1994년부터 3차 산업의 생산액이 2차 산업을 추월하여 2015년 GRDP 대비 3차 산업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33%p 높은 79.7%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 상반기에는 그 비중이 81.9%까지 상승하면서 중국 내 31개 성(省)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베이징의 서비스업 규모는 확대 추세이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어, 서비스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 긴요한 시점임.

- ▶ 베이징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나, 향후 IT 및 혁신 기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더욱 발전하면서 3차 산업 주도의 경제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평가
 - 2차 산업 비중은 GRDP 대비 17.6%에 불과하나, 우수한 인적자원과 과학기술 기반의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
 - 특히 베이징의 주도산업은 금융, 도소매,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화·정밀화·첨단화되는 과정에서 혁신과 관련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 베이징은 △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 △ 생활밀착형 소비자 서비스업의 질적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여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주력할 방침
 - 6대 중점 분야인 △ 과학기술 △ 인터넷·정보 △ 문화·교육 △ 금융 △ 비즈니스·관광 △ 건강·의료 서비스의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외국의 선진 기술과 자본, 관리경험을 적극 받아들여 관련 업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
 -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 분야에서는 '인터넷+' 전략과 연계한 산업간 빅데이터의 통합 및 활용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콘텐츠·서비스의 심층 융합에 주력
 -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금융, 녹색 금융, 보험서비스업 발전에 집중할 방침
 - 또한 2020년까지 편의점, 농산물 소매상 등 소비자서비스 제공기업의 프랜차이즈화·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하고 유통효율을 높여 서비스 질 개선으로 수요를 확대해나갈 계획

- ▶ 최근 한국의 대(對)베이징 투자는 서비스업(2011~15년, 78.2%)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베이징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대비 서비스업 비중(2015년, 94.8%)에 비하면 서비스업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향후 베이징의 서비스 수요와 산업고도화 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출전략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긴요
 - 베이징은 6대 중점 영역에 대한 외자 지분비율과 경영 자격·범위 제한을 완화하는 대외개방 조치를 추진하고 있어 여행, 문화서비스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의 개방조치에 발맞추어 선제 투자를 단행함으로써 시장선점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생활밀착형 소비자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윈스톱 지역주민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음식, 미용 등 관련 분야의 프랜차이즈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저명한 글로벌 기업과 관련 서비스를 적극 유치할 계획인 만큼, 복합단지 내 글로벌 브랜드 유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진출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임.
 - 베이징이 보험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면서 외자기업의 건강, 의료 전문 보험회사 설립(외국인투자 비중 50% 이내)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관련 분야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가 있음.



차 례

1. 베이징시 경제 현황
2. 산업구조 변화 추세
 - 가. 산업간 구조 변화
 - 나. 산업 내 구조 변화
 - 다. 주도산업 및 특화산업
3. 13.5 규획기간 서비스업 고도화 정책
 - 가. 주요 정책 방향
 - 나. 서비스업 개방 확대
 - 다. 소비자서비스업 품질 제고
 - 라. 주력산업 ①: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 마. 주력산업 ②: 금융업
4. 평가 및 시사점
 - 가. 평가
 - 나. 시사점

참고문헌

1. 베이징시 경제 현황

■ 베이징시는 텐진(天津)시, 허베이(河北)성과 함께 수도경제권인 ‘징진지(京津冀)’ 경제권을 구성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경공업에서 벗어나 자동차, IT, 전자, 의약 등 첨단기술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재편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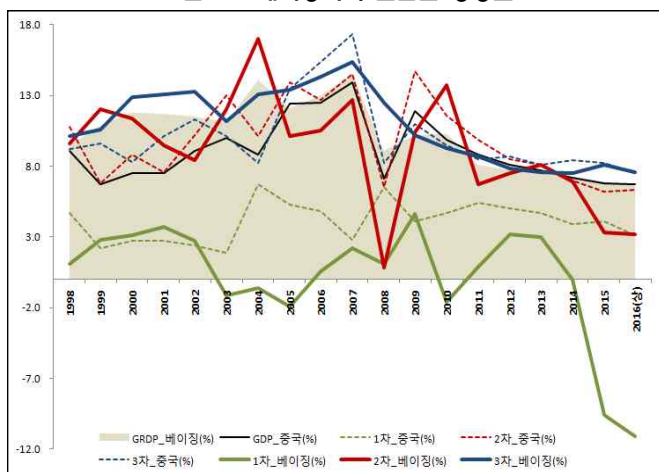
- 베이징시의 경제규모는 전국의 3.6%(2015년)에 불과하나, 우수한 인적자원과 정보·금융·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금융·문화·관광·컨벤션·부동산·물류 등의 3차 산업, 소프트웨어·R&D·IT 서비스·이동통신·광전자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기술산업, 자동차·장비제조·신소재·의약 등의 첨단제조업이 발달
- 특히 우수한 과학기술자원을 활용하여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과학기술 혁신 중심지로 발전하되, 고부가가치화·정밀화·첨단화된 경제구조를 구축하여 경제발전의 질과 효율을 높일 계획임.

- 베이징은 향후 수도의 핵심기능을 최적화하는 데 주력하고, 산업 분포와 발전이 도시의 전략적 기능에 부합하도록 과학 기술을 핵심으로 한 혁신주도형 발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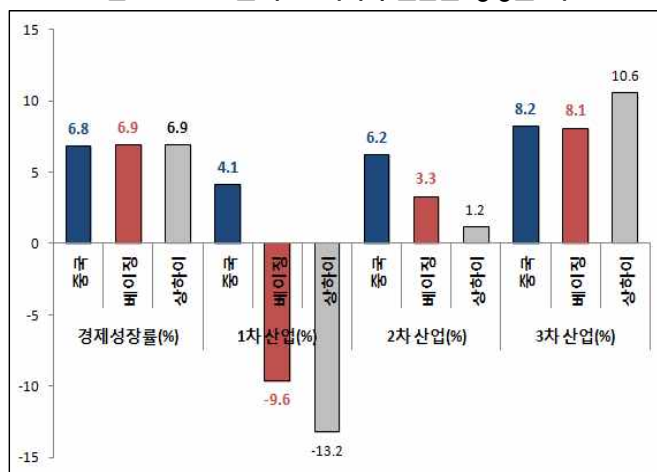
- 13차 5개년 계획기간(2016~2020년) 징진지 역내 산업이전과 구조조정을 통해 산업고도화를 촉진하고 정치·문화·국제교류·과학혁신에 도시기능을 집중시켜 3차 산업과 IT 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식경제와 친환경 최첨단 산업 중심의 국제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임.
- 중앙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징진지 협동발전’ 전략은 베이징시의 비수도(非首都) 기능과 제조업 생산기능을 텐진과 허베이로 이전·분산시킴으로써 대도시의 병폐를 완화하고 지역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

그림 1. 베이징시의 산업별 성장률



자료: CEIC.

그림 2. 2015년 주요 지역의 산업별 성장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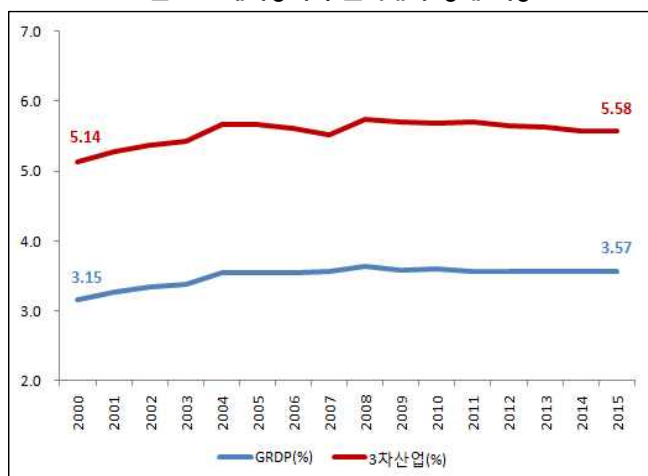
자료: CEIC.

■ 2000~15년 베이징시의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3차 산업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전국 평균(9.4%)을 상회하는 10.3%의 성장을 달성하였으며, 2015년에는 전국 평균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같은 기간 산업별로는 1차 산업(0.4%)과 2차 산업(9.1%)의 연평균 성장률이 전국 평균(각각 4.3%, 10.3%)을 크게 하회한 반면, 3차 산업(11.0%)의 성장률은 전국 평균(10.4%)을 상회

- 베이징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실질 GRDP는 2000~15년간 4.4배 확대(같은 기간 중국의 실질 GDP는 3.9배 확대)
- 특히 2000년 이후 베이징시의 산업별 연평균 실질성장률에서 3차 산업이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을 상회하며 서비스업이 성장을 견인
- 2000~15년 베이징시의 전국 대비 산업별 비중은 1차 산업(0.5% → 0.3%) 및 2차 산업(2.3% → 1.9%)은 저하된 반면, 3차 산업은 5.1%에서 5.6%로 상승
- 그러나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2007년 이후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2년부터는 전국 평균을 하회
- 산업규모에서 베이징시 서비스업은 2003년부터 상하이시를 추월하였으나,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된 2013년부터 두 지역간 격차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
- 서비스업 진흥을 위해 베이징시는 서비스업 개방 확대, 소비자서비스업 및 생산자서비스업 발전 등을 골자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제3장의 '서비스업 고도화 정책' 참고).

그림 3. 베이징시의 전국대비 경제 비중



주: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CEIC.

그림 4. 서비스업 규모 비교(베이징 vs 상하이)



주: 부가가치 기준.
자료: CEIC.

■ 2000년대 초반 한국의 대중 수출 중 4.7%를 차지하였던 대베이징시 수출은 2015년 4.1%로 다소 위축되었으며, 한국의 베이징시에 대한 직접투자(ODI) 비중은 2007년 20.6%에서 2015년 12.4%까지 하락

- 2015년 한국의 대베이징시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71.1억 달러와 10.2억 달러로, 한국은 베이징시의 5대 수출대상국(점유율 3.5%)이자 4대 수입대상국(점유율 8.1%)
- 2011~15년 중 베이징시의 대한국 수출·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2.9%와 -10.7%로, 베이징시의 수출증가율(-1.9%) 및 수입증가율(-2.7%)과 비교할 때 한국과의 교역이 더욱 빠르게 축소
- 2015년 기준 한국의 대베이징시 수출액과 수입액의 비중은 대중국대비 4.1%와 1.0%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수입에서 베이징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

1) 중국은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조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서비스시장의 규제 완화와 개방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를 설립하였음. 이에 힘입어 상하이시 서비스업은 2015년 기준 전국평균(8.2%)과 베이징시(8.1%)의 서비스 성장률을 상회하는 10.6%의 성장률을 기록. 노수연 외(2015),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KIEP.

- 2015년 기준 한국의 대베이징시 주요 수출품목은 △ 자동차 및 그 부분품(HS-87: 20억 9,500만 달러) △ 전기기기(HS-85: 13억 3,600만 달러) △ 원자로·보일러·기계류(HS-84: 9억 6,200만 달러) △ 정밀기기 등(HS-90: 6억 6,900만 달러) △ 광물성 연료·광물유(HS-27: 6억 5,500만 달러)로, 이들 5대 품목의 비중이 80.5%를 차지
- 한국의 대베이징시 주요 수입품목은 △ 전기기기(HS-85: 2억 5,000만 달러) △ 정밀기기 등(HS-90: 2억 300만 달러) △ 원자로·보일러·기계류(HS-84: 1억 2,800만 달러) △ 자동차 및 그 부분품(HS-87: 1억 800만 달러) △ 유기화합물·무기화합물(HS-28: 8,500만 달러)로, 이들 5대 품목이 76.1%를 차지
- 2011~15년 중 한국의 대베이징시 직접투자(누적액)는 24억 7,962만 달러로 대중국 직접투자(187억 3,971만 달러)의 13.2%의 비중을 차지하며, 2013년 이후 대중국 직접투자 중에서 베이징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확대
- 2011~15년 중 한국의 대베이징시 직접투자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1%와 78.2%로, 대중국 직접투자가 제조업 중심(78.0%)인 것과는 상반된 특징을 나타냄.
- 같은 시기 업종별 투자 비중은 △ 부동산업(28.3%) △ 금융업(18.1%)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3.8%)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12.2%)의 순서로, 서비스업이 대다수를 차지
- 2014년 베이징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가운데 한국은 2.1%를 차지하며 홍콩(59.9%), 독일(11.1%), 버진아일랜드(4.2%), 싱가포르(3.9%) 등을 이어 7위를 기록

2. 산업구조 변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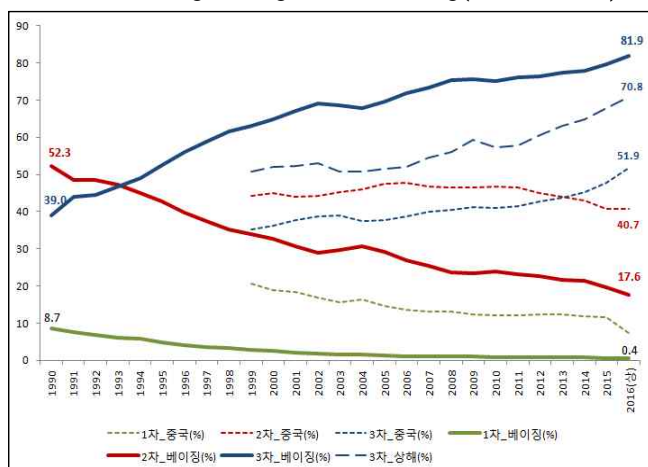
가. 산업간 구조 변화

- 베이징시는 3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율 역시 3차 산업이 가장 컸음.
- GRDP 대비 산업별 비중(부가가치 기준)에서 3차 산업은 1994년 처음 2차 산업을 넘어섰으며, 이후에도 3차 산업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2차 산업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
 - 2016년 상반기 베이징시 3차 산업의 비중이 81.9%를 기록하면서 중국 내 31개 성(省)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상하이시의 3차 산업 비중(70.8%)보다 11.1%p나 높은 수준
 - 중국 전체로는 2012년 이후 3차 산업의 비중이 2차 산업을 상회하였으며, 2015년 51.9%의 비중을 기록
-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는 것과 대조적으로 3차 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더욱 심화
 - 1990년 52.3%의 비중을 차지하였던 2차 산업은 2016년 상반기에 17.6%까지 하락하였으며, 특히 1차 산업의 비중은 0.4%에 불과
- 2001년 이후 베이징시 2차·3차 산업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평균 기여율은 각각 24.9%와 75.0%로 나타나, 3차 산업의 발전이 베이징시의 경제성장을 견인
 -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의 경우 3차 산업의 성장 기여율은 97.5%에 달했으며, 최근에도 80%에 가까운 기여율을 나타내고 있음.

■ 베이징시 2차 산업 비중은 GRDP의 17.6% 수준에 불과하나 우수한 과학기술자원과 높은 R&D 투자에 힘입어 최근 첨단산업 위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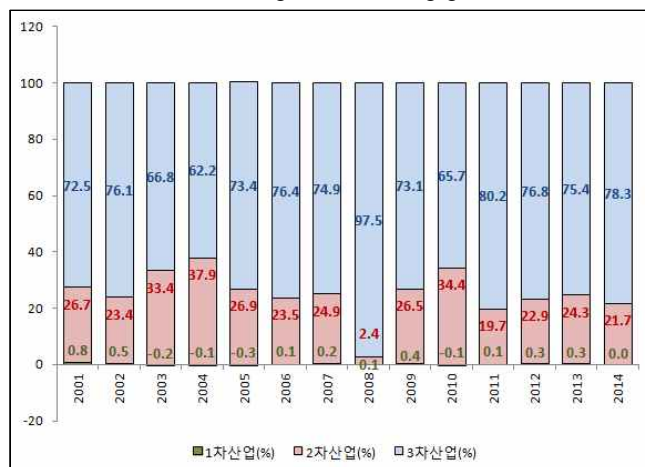
- 2차 산업의 비중은 1997년 37.6%에서 2014년 21.3%로 빠르게 축소되면서 전국에서 쓰촨성(12.4%) 다음으로 2차 산업의 비중이 작은 지역이 됨.
- 베이징시는 우수한 인적자원과 과학기술자원, GRDP의 6%에 달하는 R&D 투자 등 중국 내 최고수준의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최근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고 있으며, 제조업 역시 첨단산업이 확대되면서 산업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제조업 세부업종을 기술수준별²⁾로 구분하여 1997년과 2014년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첨단기술산업과 중고위기술산업의 비중은 각각 2.8%p와 22.5%p가 확대된 반면, 중저위기술산업(-15.3%p)과 저위기술산업(-10.0%p)의 비중은 크게 축소

그림 5. 베이징시 및 중국의 산업별 비중(부가가치 기준)



자료: CEIC.

그림 6. 베이징시의 산업별 성장 기여율



자료: 베이징시 통계국(www.bjstats.gov.cn).

■ 서비스 부문에 대한 높은 투자율, 소득증대³⁾와 그에 따른 서비스소비지출⁴⁾의 확대 등 지출국민소득 구성항목별 기여율에서도 서비스와 관련된 항목이 베이징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

- 2001~14년 소비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평균 62.1%로 투자의 기여율(36.5%)을 크게 압도
 - 이는 소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소비 지출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지출 중 서비스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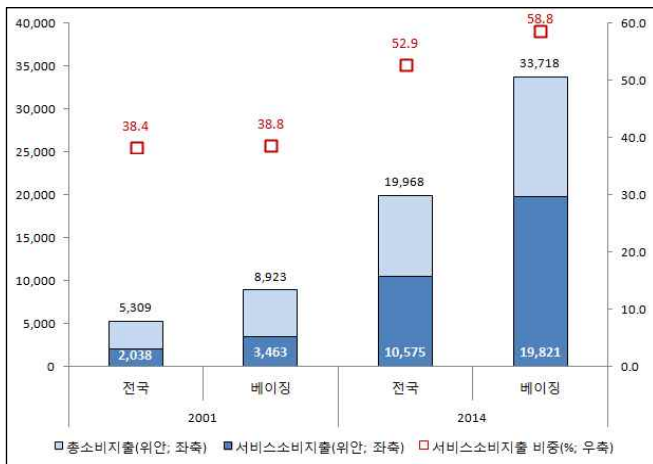
2) OECD는 산업별 평균 R&D 집중도(intensity)를 기준으로 첨단기술산업, 중고위기술산업, 중저위기술산업 및 저위기술산업으로 구분하고 있음. 각 기술수준별 산업군에 포함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음. △ 고위기술산업: 컴퓨터·사무용기기, 전자산업, 영상·음향·통신 장비, 항공기, 의료·정밀·광학 기기 △ 중고위기술산업: 석유화학, 비전기·전기기계, 자동차·트레일러, 시계제조업 △ 중저위기술산업: 코크스·석유정제품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 제1차 금속, 선박 제조 △ 저위기술산업: 음식료품, 섬유제품, 봉제·의복·모피 제품, 가죽·가방·신발, 목재·나무제품, 펄프·종이·종이 제품, 출판·인쇄·기록매체 복제업. 이문형, 김갑수, 박중구(2007), 「한중일 제조업의 기술수준별 경쟁과 협력 분석」, p. 274.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3) 2015년 도시기준으로 베이징시의 연간 1인당 가처분소득과 1인당 소비지출은 각각 5만 2,859위안(전국 2위)과 3만 6,642위안(전국 2위)이었는데, 이는 전국 평균의 1.7배에 해당하는 수준임.

4) 통계국에서 제공하는 8개 지출항목 중에서 주거, 교통·통신, 교육·문화·레저, 의료의 4개 항목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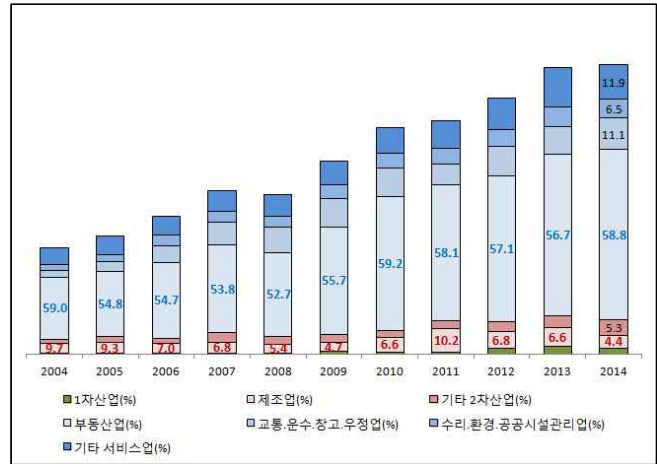
- 2014년 기준 베이징시의 고정자산투자는 서비스업이 88.3%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이 58.8%를 차지하면서 3차 산업의 발전과 양적 확대에 기여
- o 그러나 베이징시의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증가율은 2013년 25.4%에서 2014년 -12.8%로 급감

그림 7. 베이징 도시지역 1인당 연간 소비지출액



자료: 베이징시 통계국(www.bjstats.gov.cn).

그림 8. 베이징시 고정자산투자의 항목별 비중



자료: 베이징시 통계국(www.bjstats.gov.cn).

나. 산업 내 구조 변화

■ 산업구조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구조변환율(RST) 지수를 이용하여 서비스업의 구조변화를 계산한 결과, 베이징시의 서비스업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구조변화를 겪음.

- 2005~2014년 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⁵⁾ 부가가치가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한 구조변환율(RST) 지수를 보면 베이징시는 0.143으로 전국 31개 지역 가운데 6위를 기록
- o 구조변화를 크게 겪은 지역은 구이저우성(0.344), 상하이시(0.206), 산둥성(0.151), 하이난성(0.146), 헤이룽장성(0.146) 등으로, 이들 지역은 2005년 이후 서비스업 발전과정 중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등 비교적 큰 구조변화를 겪은 것으로 평가됨.
- 베이징시는 지역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서비스업이 급격한 발전단계를 넘어 안정적인 단계에 들어서면서 구조변환율 지수는 다소 낮은 6위를 기록
- 베이징시가 고부가가치화 정밀화 첨단화된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발전하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으면서도 RST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5) 서비스업의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부 업종별 통계자료가 필요하나, 중국의 경우 2005년부터 서비스업을 △ 교통운수·창고·우정업 △ 도소매업 △ 숙박·음식점업 △ 금융업 △ 부동산업 △ 기타 서비스업의 6개 업종으로 분류한 일관된 통계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2005~14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함. 베이징시는 기타 서비스업을 △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 임대·비즈니스서비스업 △ 과학·기술서비스업 △ 수리·환경·공공시설관리업 △ 주민·기타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서비스업으로 분류한 14개 세부업종의 통계데이터를 발표하고 있음. 서비스업의 세부업종 분류에 대해서는 [표 3] 참고.

참고: 구조변환율(RST: Rate of Structural Transformation) 지수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변화하였는가를 수량적으로 보기 위해 Young(1992)이 개발한 지표
- 각 산업의 비중 변동치의 절댓값을 모두 더한 값으로 계산하며, 그 값이 클수록 산업구조의 변화 정도가 큼을 나타냄. 구조변환율 지수는 0과 2 사이의 값을 취함.

$$RST = \sum_{i=1}^N |S_i^t - S_i^{t-1}| \quad (\text{단, } S_i^t: t\text{기 } i\text{업종의 비중})$$

- 구조변환율 지수는 양(+)의 값을 갖는데, 이는 특정 산업의 비중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것과 관계없이 비중 변화율의 증감 자체가 산업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
- 구조변환율은 산업의 비중 확대뿐만 아니라 산업의 쇠퇴에 따른 비중 축소에 의해서도 변동하게 되므로, 구조변환율 지수가 반드시 산업고도화의 진행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라기보다는 전체 경제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지표임.

표 1. 중국 지역(省)별 서비스업의 구조변환율(RST) 지수(2005~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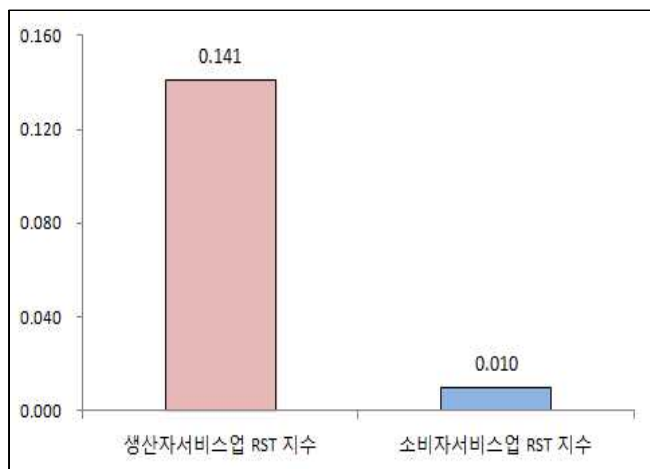
순위	지역	서비스업 비중			RST	순위	지역	서비스업 비중			RST
		2005년 (%)	2014년 (%)	증감 (%p)				2005년 (%)	2014년 (%)	증감 (%p)	
-	전국	39.4	44.6	5.3	0.074	16	윈난	39.5	43.3	3.8	0.127
1	베이징	69.1	77.9	8.8	0.143	17	후난	40.6	42.2	1.6	0.058
2	상하이	50.5	64.8	14.3	0.206	18	랴오닝	39.6	41.8	2.1	0.076
3	시짱	55.6	53.5	-2.1	0.089	19	후베이	40.3	41.5	1.1	0.061
4	하이난	41.8	51.9	10.1	0.146	20	신장	35.7	40.8	5.1	0.067
5	톈진	41.5	49.6	8.1	0.121	21	푸젠	38.5	39.6	1.1	0.064
6	광둥	42.9	49.0	6.1	0.076	22	네이멍구	39.3	39.5	0.2	0.069
7	저장	40.0	47.8	7.8	0.079	23	쓰촨	38.4	38.7	0.3	0.059
8	장쑤	35.4	47.0	11.6	0.117	24	광시	40.5	37.9	-2.7	0.094
9	충칭	43.9	46.8	2.9	0.105	25	허베이	33.3	37.3	4.0	0.091
10	헤이룽장	33.7	45.8	12.1	0.146	26	허난	30.0	37.1	7.1	0.093
11	구이저우	39.6	44.6	5.0	0.344	27	칭하이	39.3	37.0	-2.2	0.100
12	산시(山西)	37.4	44.5	7.1	0.119	28	산시(陝西)	37.8	37.0	-0.8	0.071
13	간쑤	40.7	44.0	3.3	0.104	29	장시	34.8	36.8	2.0	0.096
14	산둥	32.0	43.5	11.5	0.151	30	지린	39.1	36.2	-2.9	0.053
15	닝샤	41.7	43.4	1.7	0.053	31	안후이	40.7	35.4	-5.3	0.111

주: 순위는 서비스업의 2014년 비중을 기준으로 함; 서비스업의 비중은 각 지역의 GRDP에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CEIC 데이터를 기초로 저자 작성.

- 베이징시의 서비스업은 연도별로 구분할 때 글로벌 경기둔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던 2007~08년과 2013~14년에 가장 큰 구조변화를 겪었으며, 업종별로는 생산자서비스업이 소비자서비스업에 비해 큰 구조변화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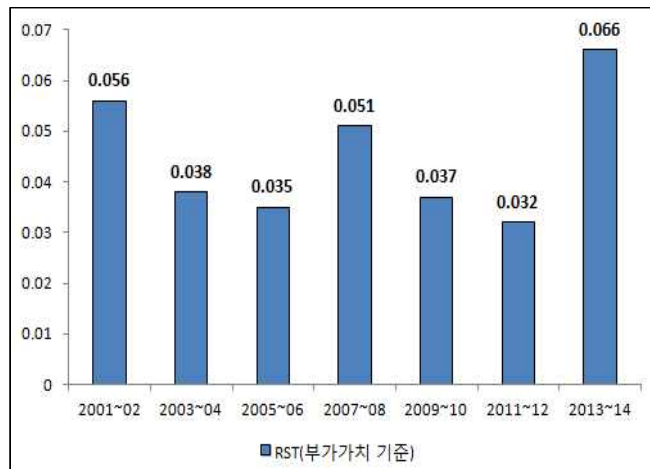
- 2007~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2013~14년은 남유럽을 중심으로 재정위기가 발생한 시기로, 글로벌 경기둔화로 중국의 수출이 급감
- 글로벌경기 둔화로 중국의 상품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2차 산업의 성장률이 둔화된 반면, 내수에 의존하는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서비스업의 구조변화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됨.
 - o 2008년과 2013년 2차 산업의 성장 기여율은 각각 0.1%와 24.3%로 2001~14년 2차 산업의 평균 성장 기여율 25.0%를 하회한 반면, 서비스업의 성장 기여율은 평균(75.0%)을 상회
- 수요자 특성에 따라 서비스업을 구분할 때, 6) 생산자서비스업의 구조변화가 소비자서비스업을 크게 상회
 - o 생산자서비스업의 구조 변화는 임대·비즈니스서비스업(연평균 성장률 20.9%), 과학·기술서비스업(20.4%),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19.9%)에서의 빠른 성장과 그에 따른 비중 확대에 주로 기인

그림 9. 베이징 생산자·소비자 서비스업의 RST 지수(2000~14년)



자료: CEIC 데이터를 기초로 저자 작성.

그림 10. 베이징시의 연도별 RST 지수



자료: CEIC 데이터를 기초로 저자 작성.

다. 주도산업 및 특화산업

■ 베이징시의 서비스업은 △ 금융업 △ 도소매업 △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등이 주도산업을 이루고 있음.

- 주도산업(leading industry)은 경제발전 각 단계에서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본 분석에서는 베이징시의 서비스업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위의 산업을 주도산업으로 선정⁷⁾

6) 서비스업은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업과 소비자서비스업으로 분류할 수 있음. 생산자서비스업은 △ 교통운수·창고·우정업 △ 금융업 △ 부동산업 △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 임대·비즈니스서비스업 △ 과학·기술서비스업을 포함하며, 소비자서비스업은 △ 도소매업 △ 숙박·음식점업 △ 주민서비스·기타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함. EU(2003), "The Competitiveness of Business-related Services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Performance of European Enterprises"; 정선영(2013),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업의 생산성 결정요인: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26권 제4호에서 재인용.

7) 주도산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산업의 규모와 성장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유발하는 파급효과의 크기, 수출이나 고용에 대한 기여율 등이 있음.

- 분석결과 2014년 베이징시 서비스업의 5대 주도산업은 △ 금융업 △ 도소매업 △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 임대·비즈니스서비스업 △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이들 업종의 비중은 67.4%에 달함.
- 2000년과 비교했을 때 임대·비즈니스서비스업과 과학·기술서비스업이 주도산업으로 새롭게 진입

표 2. 베이징시의 시기별 주도산업 비교(서비스업, 2000년 및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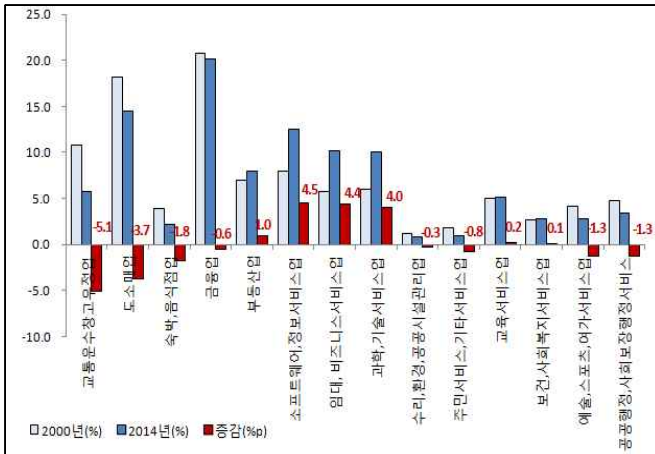
순위	2000년		2014년	
	업종	비중(%)	업종	비중(%)
1	금융업	20.8	금융업	20.2
2	도소매업	18.2	도소매업	14.5
3	교통운수·창고·우정업	10.8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12.5
4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8.0	임대·비즈니스서비스업	10.2
5	부동산업	7.0	과학·기술서비스업	10.0
6	과학·기술서비스업	6.0	부동산업	8.0
7	임대·비즈니스서비스업	5.8	교통운수·창고·우정업	5.7
8	교육서비스업	5.0	교육서비스업	5.2
9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서비스업	4.8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서비스업	3.5
10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4.1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2.8
11	숙박·음식점업	4.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8
1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7	숙박·음식점업	2.2
13	주민서비스·기타서비스업	1.8	주민서비스·기타서비스업	0.9
14	수리·환경·공공시설관리업	1.1	수리·환경·공공시설관리업	0.8
비교	생산자서비스업	58.4	생산자서비스업	66.6
	소비자서비스업	35.7	소비자서비스업	28.4

주: 비중은 베이징시 서비스업의 전체 부가가치대비 업종별 비중을 표시함.
자료: CEIC 데이터를 기초로 저자 작성.

■ 베이징시는 생산자서비스업이 성장하면서 그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4.5%p)의 비중이 가장 크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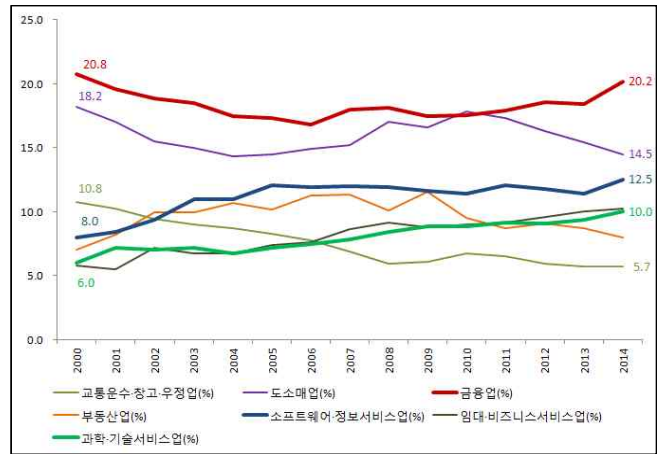
- 세부업종별로 보면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외에 △ 임대·비즈니스서비스업(4.4%p) △ 과학·기술서비스업(4.0%p) 등 대부분 생산자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확대
 - 반면 △ 교통운수·창고·우정업(-5.1%p) △ 도소매업(-3.7%p) △ 숙박·음식점업(-1.8%p) 등 주로 소비자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
- 서비스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금융업의 경우 서비스업 내 비중이 축소되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다시 확대되고 있으며, 도소매업의 경우 금융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10년 이후 빠르게 축소

그림 11. 베이징시 서비스 업종별 비중의 증감



주: 서비스업 부가가치에서 각 세부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CEIC 데이터를 기초로 저자 작성.

그림 12. 베이징시 주요 서비스업종의 비중 변화 추이



주: 서비스업 부가가치에서 각 세부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자료: CEIC 데이터를 기초로 저자 작성.

참고: 입지계수(LQ: Location Quotient Coefficient)

- 특정 지역(국가)의 산업집중도 또는 특화 정도(비교우위)를 판단할 때 이용하는 계수로, 지역산업의 상대적인 비중을 계산함으로써 지수를 산출
- 일반적으로 입지계수(LQ) 값이 1을 초과할 경우 특정 지역의 해당 산업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입지계수가 2 이상일 경우 특화 정도가 매우 높음을 의미함.

$$LQ_{ij} = \frac{X_{ij}/X_j}{X_i/X} = \frac{j\text{지역에서 } i\text{업종의 비중}}{\text{전국에서 } i\text{업종의 비중}}$$

단, LQ_{ij} : j 지역 i 산업의 입지계수

X : 전국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X_i : 전국 i 업종의 부가가치

X_j : j 지역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X_{ij} : j 지역 i 업종의 부가가치

■ 입지계수(LQ)를 이용하여 비교우위 산업을 분석한 결과 금융업과 기타 서비스업이 특화산업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6대 분류기준으로 입지계수가 1 이상인 특화산업은 2014년 2개 업종이었으며, 이는 2000년과 동일한 결과임.
 - 기타 서비스업에서는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 임대·비즈니스서비스업 △ 과학·기술서비스업 △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이 특화산업으로 분류
- 특화 정도를 나타내는 입지계수를 비교하면 기타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비교우위가 약화되었음.
 - 특화산업 중 금융업은 비교우위가 약화된 반면, 기타 서비스업의 비교우위는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서비스업 중 △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 임대·비즈니스서비스업 △ 과학·기술서비스업은 2000년에 비해 비교우위가 더욱 강화된 반면 △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의 비교우위는 약화

표 3. 베이징시 서비스 세부업종별 입지계수 비교(2000년 및 2014년)

서비스업 세부업종명	입지계수	
	2000년	2014년
교통운수·창고·우정업	0.70	0.62
도소매업	0.89	0.72
숙박·음식점업	0.74	0.60
금융업	1.71	1.33
부동산업	0.68	0.65
기타 서비스업	1.09	1.25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1.73*	2.34**
임대·비즈니스서비스업	1.71*	2.09**
과학·기술서비스업	2.56*	2.69**
수리·환경·공공시설관리업	0.73*	0.67**
주민·기타서비스업	0.52*	0.28**
교육서비스업	0.89*	0.7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0.66*	0.69**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2.23*	2.09**
공공행정·사회보장행정서비스업	0.53*	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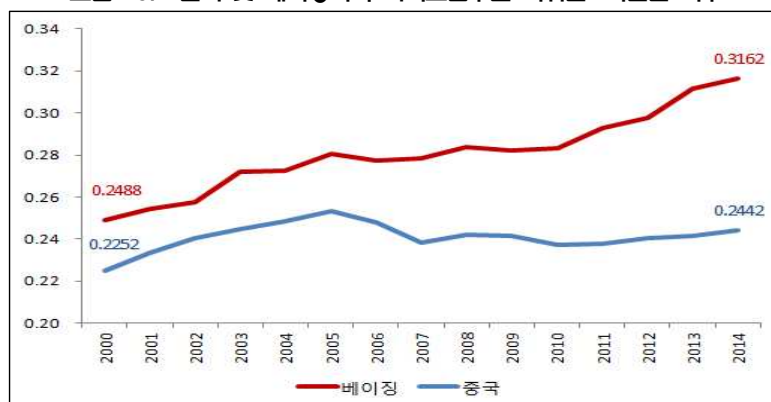
주: *와 **는 각각 2004년과 2013년 데이터를 이용한 입지계수임.

자료: CEIC; 베이징시 통계국(www.bjstats.gov.cn).

■ 베이징 서비스업이 특정 업종에 얼마나 집중된 구조인가 알아보기 위해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를 계산한 결과, 베이징 서비스업의 구조는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정 업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4년 서비스업의 산업집중도는 중국과 베이징시 모두 2000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베이징시가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상승(6대 업종 분류 기준)
 - 2000년 중국과 베이징시의 허쉬만·허핀달 지수는 각각 0.225와 0.249로 나타나 베이징시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정 업종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특징은 2014년까지 지속
 - 전국적으로는 산업집중도가 계속 상승하다가 2005년부터 다소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인 반면, 베이징시의 산업집중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냄.
- 산업집중도의 변화는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상위 2대 업종의 집중도(CR-2) 변화에서도 나타남. 즉 전국의 CR-2는 56.7%(2000년)에서 59.6%(2014년)로 다소 상승한 반면, 같은 시기 베이징시는 60.1%에서 69.6%로 크게 상승

그림 13. 전국 및 베이징시의 서비스업부문 허쉬만-허핀달 지수



자료: CEIC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참고: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Hirschman-Herfindahl Index)

- 어느 지역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특정 업종(군)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수
- 해당 지역의 산업구조가 특정 업종(군)에 집중되어 있을수록 그 값은 증가하며(최댓값은 1), 반대로 모든 업종의 비중이 균등해질수록 그 값은 감소(최솟값은 1/업종수: 본 분석에서는 6개 업종의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므로 최솟값은 0.1667)
- 허쉬만·허핀달 지수가 작을수록 특정 업종에 대한 의존도 또는 집중도가 낮고 다양한 업종이 해당지역 내에서 함께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

$$HHI = \sum_{i=1}^N \left(\frac{Q_{ij}}{Q_j} \right)^2 \quad (\text{단, } Q_j: j\text{지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 Q_{ij}: j\text{지역 } i\text{업종의 부가가치})$$

3. 13.5 규획기간 서비스업 고도화 정책

가. 주요 정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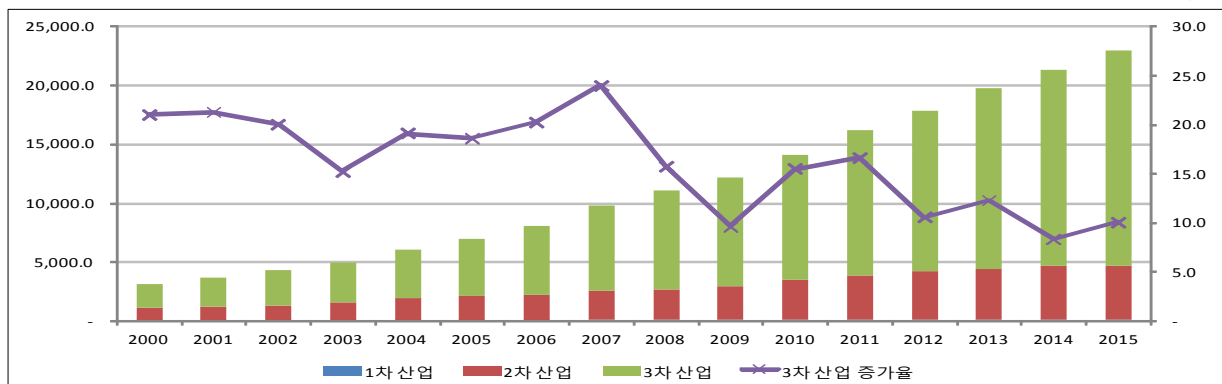
■ 2015년 베이징의 GR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79.8%를 기록했으나, 최근 서비스업의 성장속도는 둔화되고 있는 추세임. 이에 13.5 규획기간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을 통한 서비스업의 업그레이드를 적극 추진하여 서비스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임.

- 베이징 GR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2011년 75.7%에서 2015년 79.8%로 확대되었으나, 같은 기간 전년대비 서비스업 생산액 증가율은 16.6%에서 10.1%로 6.5%p 하락함.

- 이에 베이징은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서비스업 선진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내에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집중 육성 및 소비자서비스업의 질적 고도화를 통해 내실을 다질 방침임.

그림 14. 베이징 산업별 생산액(2000~15년)

(단위: 억 위안, %)



자료: CEIC.

- 12.5 규획기간 베이징은 생산자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서비스업 주도형의 경제구조를 견고히 하였으며, 13.5 규획기간에는 △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 소비자서비스업의 품질 제고 △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업 집중 육성을 통한 고도화를 추진하고자 함.
- 13.5 규획기간에는 서비스업 개방 확대정책을 시행하여 외국의 자본과 선진적인 기술, 관리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베이징 서비스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계획임.
 - 과학기술, 인터넷·정보, 문화·교육, 금융, 비즈니스·관광, 건강·의료 서비스 등 베이징이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6대 분야의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할 방침임.
 - 소비자서비스업의 경우 12.5 규획기간 양로, 건강 서비스업 등 신흥 서비스업 발전에 집중하였다면 13.5 규획기간에는 소비자서비스업 품질제고 행동계획(北京市提高生活性服务业品质行动计划)을 실시하여 산업 전반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임.
 - 소비자서비스업의 품질제고를 통해 서비스 공급을 최적화하여 소비 수요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소비의 창출을 통해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여 서비스 경제 전반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임.
 - 12.5 규획기간 베이징은 생산자서비스업 발전 촉진 실시의견(促进生产性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을 시행하여 금융, 정보, 과학기술, 유통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업의 내실을 다졌으며, 13.5 규획기간에는 생산자서비스업 중 소프트웨어 및 정보, 과학 서비스업 등 지식집약형 서비스업 발전에 주력하여 생산자서비스업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계획임.

표 4. 베이징시 주요 서비스업 육성정책(2011~16년)

주요 정책	연도	관련 문건
서비스업 시험구역 조성	2011	중관촌 현대서비스업 시험구역 방안(中关村现代服务业试点方案)
	2013	스징산 국가서비스업종합개혁시범구역 발전 추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推进石景山区国家服务业综合改革试点区发展意见)
생산자서비스업 발전 추진	2011	베이징시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12.5 발전규획(北京市软件和信息服务“十二五”发展规划)
	2011	베이징시 인민정부 수도 지식재산권서비스업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北京市人民政府关于促进首都知识产权服务业发展的意见)
	2012	베이징시 12.5 시기 생산자서비스업 발전 규획(北京市“十二五”时期生产性服务业发展规划)
	2015	베이징시 인민정부 보험서비스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실시의견(北京市人民政府关于加快发展现代保险服务业的实施意见)
	2015	베이징시 인민정부 수도과학서비스업 발전 가속화에 관한 의견(北京市人民政府关于加快首都科技服务业发展意见)
	2016	베이징시 13.5 시기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발전규획(北京市“十三五”时期软件和信息服务业发展规划)
	소비자서비스업 발전 추진	2013
2014		베이징시 인민정부 건강서비스업 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의견(北京市人民政府关于促进健康服务业发展的实施意见)
2014		베이징시 문화창의산업기능구 건설 발전 규획(北京市文化创意产业功能区建设发展规划(2014—2020年))
2014		베이징시 문화창의산업 제고 규획(北京市文化创意产业提升规划(2014—2020年))
2015		베이징시 문화창의와 관련 산업 융합 발전 추진 액션플랜(北京市推进文化创意和设计服务与相关产业融合发展行动计划(2015—2020年))
2015		베이징시 소비자서비스업 품질제고 행동계획(北京市提高生活性服务业品质行动计划)
2016		베이징시 인민정부 여행업 개혁발전 촉진에 관한 실시의견(北京市人民政府关于促进旅游业改革发展的实施意见)
2016		베이징시 13.5 시기 문화창의산업 발전규획(北京市“十三五”时期文化创意产业发展规划)
2016		베이징시 13.5 시기 상업서비스업 발전규획(北京市“十三五”时期商业服务业发展规划)
서비스업 개방 확대	2015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지역 종합방안(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
	2015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지역 실시방안(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实施方案)

자료: 베이징시 홈페이지(www.beijing.gov.cn).

나. 서비스업 개방 확대

■ 베이징은 13.5 규획기간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할 방침임. 이를 위해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정책을 시행하여 외국의 자본과 기술, 관리경험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베이징 서비스업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계획임.

- 2015년 5월 5일 국무원이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정책에 관한 종합방안」을 승인함으로써 베이징시는 중국 서비스업 개방 확대의 첫 번째 시범지역으로 선정됨.⁸⁾
- 2018년까지 시행될 개방 확대 정책은 서비스업의 진입규제 완화와 관리·감독체제 개혁을 통해, 베이징 서비스업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 가능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표 5. 베이징시 서비스업의 3단계 발전 목표

단계	발전 목표
시작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5월 5일 ~ 2015년 9월 30일 - 우선 시범지역과 영역을 선정하여 첫 개방조치를 실시 - 서비스업 개방 확대 관련 산업발전 플랫폼, 정책통합 플랫폼, 공공서비스 플랫폼 조성
심화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10월 1일 심화단계 진입 -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방안의 전면적 실시 - 베이징 내 시범지역을 확장하고, 지속적으로 서비스업 개방 확대의 새로운 조치를 실시 - 정부 관리감독과 공공서비스 체계 보완 - 베이징 서비스업 전반의 업그레이드 촉진
최종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정책 완성 전 최종 단계 - 시범정책의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 가능한 시범사업 발굴.

자료: 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领导小组办公室(2015. 11), 「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文件汇编」.

■ 베이징은 △ 과학기술 △ 인터넷·정보 △ 문화·교육 △ 금융 △ 비즈니스·관광 △ 건강·의료의 6대 중점영역에 대한 개방 확대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임.

- 6대 중점 개방영역은 베이징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로, 해당 영역의 외자지분비율과 경영 자격·범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시행 중에 있음.
 - 문화·교육서비스 부문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100% 지분 출자로 공연연출중개회사 설립이 가능해졌고, 관광서비스 부문에서는 기존에 제한되었던 외국인 투자여행사의 아웃바운드 관광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제3국으로 나가는 중국인 여행객에게 관광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음.
 - 금융서비스 부문 개방조치 중 외자 금융기관의 독자은행 설립은 현행법 상으로도 가능하나 등록자본, 재무상황 등 설립 요건이 까다로웠음. 따라서 독자은행 설립의 가능여부보다는 설립요건이 얼마나 완화되는지가 관건임.

8) '종합방안' 승인 이후,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베이징시정부와 상무부는 공동으로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 시범정책 실시 방안(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实施方案)」을 발표하여 구체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음.

표 6. 중점영역별 서비스업 개방 확대를 위한 세부 조치

중점영역	세부업종	기존 제한내용	베이징 개방조치
과학기술서비스	과학연구와 기술서비스업	- 외자 플랜트 설계기업이 최초 설립 신청 시 중국 외 지역에서 두 건 이상의 플랜트 설계 실적이 요구되는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베이징 내 외자 플랜트 설계기업 최초 설립 신청 시 실적 요건 취소 - 서비스 제공 지역 베이징 내로 제한
	교통운수 창고·우정업	- 항공기 유지·보수 및 항공연료 분야는 중국 측 다수지분이어야 함.	- 항공기 유지·보수 분야 중국 측 다수 지분 제한 철폐
문화·교육서비스	문화·체육·오락업	- 홍콩, 마카오의 투자자는 독자 형태로 공연 연출 중개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기타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중국측과 합자·합작 형태의 설립만 가능하며,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음.	- 문화·오락업이 집적되어있는 특정지역에 ¹⁾ 외국인투자자의 독자 공연연출 중개회사 설립 가능 - 서비스 제공 지역 베이징 내로 제한
금융서비스	금융업	- 외국인투자 은행 설립 제한 ²⁾	- 외자 금융기관의 독자은행 설립 가능 - 중국 민간자본과 외자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한 합자은행 설립 가능
		- 외국인투자 보험회사 설립 제한(생명보험 외국인투자 비중 50% 이내)	- 외자 기업의 건강·의료 전문 보험회사 설립 가능(외국인투자 비중 50% 이내)
비즈니스·관광서비스	임대·비즈니스 서비스업	- 외국인투자 신용조회회사는 제한업종	- 외국인투자 신용조회회사 설립 가능
		-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중외합자 인력중개기관 설립 가능하나, 최저 등록자본금은 30만 달러 이상, 지분은 49%를 초과할 수 없음. - 외국인투자 여행사는 중국 내 아웃바운드 관광업무가 제한됨.	- 중관춘 자주혁신시범구 내 인력중개기관 설립 허가 - 최저 등록자본금은 12.5만 달러로 낮추고, 외국인의 지분 비중은 70% 미만 - 중외합자 여행사를 설립하여 아웃바운드 관광업무(대만 제외) 가능
건강·의료서비스	위생·보건사업	- 중외합자, 중외합자 의료기관 설립 시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 설립 전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함.	- 중외합자, 중외합자 의료기관 설립 점진적 허용 - 외국인투자 의료기관 운영심사 간소화 추진

주: 1) △ 스징산구(石景山區) 국가 서비스업 종합 개혁 시범지역 △ 텐주(天竺)종합보세구 문화 보세 단지 △ 차오양구(朝陽區) 국가 문화 산업 혁신 시범구 및 △핑구(平谷區) 러구(樂谷) 단지 등 4곳을 의미함.

2) 현행법 상 외자은행 및 중외합자은행을 설립이 가능하나 등록자본 및 투자자 요건, 재무상황, 중국 투자경험 등 설립 요건이 까다로움.

자료: 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领导小组办公室(2015. 11), 『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文件汇编』; 법무법인 율촌(2013. 10),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구 공식출범과 우리나라기업에 대한 시사점』.

■ 2016년 5월 베이징시는 순이구(顺义区)와 차오양구(朝阳区)를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综合试点示范区)로 승인 하였는데, 이들 지역은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의 테스트 베드로 활용될 방침임.⁹⁾

- [차오양시범구(朝阳示范区)] 3대 기능구(功能区)인 베이징 비즈니스 중심구(北京商务中心区), 국가 문화산업 혁신 시험구(国家文化产业创新实验区), 중관춘 차오양원(中关村朝陽园)을 중심으로 문화혁신, 금융서비스, 공공서비스,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등 6개 영역에 집중할 방침임.

○ 차오양시범구에서는 6개 영역 관련 33개 항목의 시범정책을 실시할 방침으로, 그중 19개는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정책에 포함되는 항목이고, 14개 항목은 차오양시범구에서 처음 시행되는 정책임.

- 차오양구는 베이징의 경제 중심구로서 2015년 기준 외국인투자(FDI, 도착기준)는 93억 4,000만 달러로 베이징 전체의 71%를 차지하고, 수출입 총액은 1,262억 6,000만 달러로 시 전체의 40%에 달함. 또한 차오양구 내에는 베이징 전체의 약 70%에 달하는 다국적 기업 및 외국 금융기관이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음.¹⁰⁾

9) 『北京商报』(2016. 7. 25), 『北京扩大开放服务业的顺义路径』.

10) 『北京日报』(2016. 8. 6), 『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示范区揭牌』.

- [순이시범구(顺义示范区)] 텐주종합보세구(天竺综保区), 공항경제핵심구(临空经济核心区), 중관춘 순이원(中关村顺义园) 등 3개의 기능별 플랫폼을 활용하여 항공서비스, 국제전자상거래, 문화무역, 금융서비스, 자동차서비스, 바이오의약 산업 발전을 추진할 계획임.
- o 순이시범구에서도 6개 영역의 산업과 관련된 38개 항목의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색산업클러스터를 발전시켜 서비스업 개방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방침임.
- 베이징의 중심구인 차오양구 외 순이구를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구로 지정한 이유는 서비스업 산업기반이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임.
- o 2015년 순이구의 GRDP는 1,441억 위안으로 이 중 서비스업 비중은 58.4%를 기록함.
- o 같은 기간 일반 공공예산 수입 약 125억 위안 중 서비스업 수입 비중이 63.1%에 달하며, 구 전체의 FDI 중 서비스업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함.
- o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수도공항과 텐주종합보세구가 위치해 있어 항공무역시험구 조성과 국제전자상거래 발전에 유리하며, 종합보세구 내 국가 대외 문화 무역기지(国家对外文化贸易基地), 베이징 국제 과학기술 무역기지(北京国际科技贸易基地)가 입지해 있어 문화무역, 바이오의약 등 수출지향형 서비스업 발전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다. 소비자서비스업 품질 제고

■ 베이징은 13.5 규획기간 소비자서비스업의 규범화, 프랜차이즈화, 편리화,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하고 서비스 수준과 노동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서비스업의 질적 고도화를 실현할 방침임.

- 이를 위해 2020년까지 △ 소비자서비스 제공기업의 경영 신뢰성 제고 △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전문 서비스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 경영환경의 법치화 수준을 개선하여 소비자서비스 제공기업의 경영 신뢰성을 높이고,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계획임.
- o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 및 정찰가격, 소매상과 공급상 간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시장의 정비 및 규범화 추진
- o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노점 등 무허가 경영을 집중 단속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액 소비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비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비자서비스 제공기업의 브랜드 영향력 강화
- o 전통기업에 프랜차이즈 경영, 전자상거래 등 현대적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여 판매경로를 다양화하고 경영규모를 확대
- o 지역 내 소비자서비스 제공기업들이 브랜드 강화전략을 통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세계적으로 저명한 소비자서비스기업을 유치하여 시민의 다양한 소비수요를 충족
- o 기존의 특색상업거리(特色商业街)에 체형적 소비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규범화, 브랜드화, 국제화 발전 추진
- 정부, 협회, 기업이 다양한 분야와 수준의 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서비스업 종사자의 직종별 기능훈련 시스템을 완비하여 전문 서비스 인재를 육성하고 서비스 수준을 제고

■ 소비자서비스업 품질 제고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 편의서비스망(便民网点) 구축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전 촉진 △ 서

비스 기능의 통합 △ 경영방식(业态)의 전환발전 △ 개방 및 협력 강화 △ 친환경 발전의 6대 중점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 [편의서비스망 구축] 지역 내 편의서비스망 구축에 있어 농산품, 보건·의료, 공동배송 서비스 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할 예정임.
 - 농산품의 유통효율과 소매점포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농산품 소매점포의 프랜차이즈화·브랜드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2017년 말까지 베이징 내 프랜차이즈화·브랜드화 된 농산품 소매점포 비율 1/3 이상, 2020년 말까지 40% 이상을 목표로 함.
 - 의약품과 의료기기 전문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의약품 소매기업, 병원, 지역 보건서비스기관 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플랫폼 구축을 지원할 방침임.
- [서비스 기능의 통합] 다양한 서비스 기능이 통합된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윈스톱 지역사회 비즈니스 대민서비스 복합단지(一站式社区商业便民服务综合体)를 조성할 방침임.
 - 2017년 말까지 간편한 식사서비스 제공, 세탁물 대리수령 등의 다양한 서비스기능을 갖춘 프랜차이즈 편의점 50개를 설립하고 2020년 말까지 누적 점포수 100개를 시범 운영할 방침임. 또한 프랜차이즈 편의점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배송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입을 지원할 예정임.
 - 윈스톱 지역사회 비즈니스 대민서비스 복합단지(一站式社区商业便民服务综合体)를 조성하여 각종 소매점포와 음식점, 미용 등 소비자서비스업 관련 프랜차이즈 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으로, 2017년 말까지 20개의 지역사회 비즈니스 대민서비스 복합단지 설립, 2020년 말까지 누적 단지 수 50개를 목표로 함.
 -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쓰레기 분리수거 관리 및 자원 재활용 시스템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관련 시설을 구축할 계획임. 또한 재활용품 수거장소와 수거시간을 통일하고, 온라인 예약 판매를 결합한 자원 재활용 모델을 개발할 예정임.
- [개방 및 협력 강화] 징진지 협동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소비자서비스업의 지역 협력을 강화하고, 순차적인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시장 활력을 증진
 - 징진지 소비자서비스업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품, 가사서비스 등 관련 수급기지를 건설하고, 농산품의 전자상거래 협동 발전을 추진하여 공공정보플랫폼을 건설
 - 해외 기업의 유치를 통해 우수한 브랜드, 기술, 관리경험을 받아들여 베이징의 소비자서비스업 전반의 수준을 제고

표 7. 베이징의 소비자서비스업 발전 6대 중점업무

6대 중점업무	주요 과제
편의서비스망(便民网点) 건설	- 지역사회 상업망(商业网点) 구축 및 관리 강화 - 농산품 소매점포(零售网点) 체계 완비 - 대민 조식서비스 체계 구축 - 보건·의료(健康)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 실시 - 공동배송 네트워크 완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전 촉진	- 지역사회의 전자상거래 응용 체계 구축 추진 - 차세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비즈니스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 - 이동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과 소비자서비스업의 융합발전 추진
서비스 기능의 통합 모색	-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지역사회 자원 재활용 관리·운영 체제 혁신
경영방식(业态)의 전환발전 도모	- 편의서비스업(便民商业)의 프랜차이즈화, 브랜드화 - 전통제품 거래시장의 전환발전 추진
개방 및 협력 강화	- 지역 협동발전 추진 - 대외개방 수준 제고
친환경 발전 추진	- 소비자서비스업의 관련 기술 개발과 장비수준 제고를 통해 기업의 자체적인 발전 촉진 - 에너지 절약,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켜 환경 보호에 주력

자료: 北京市人民政府(2015. 7. 29), 「北京市提高生活性服务业品质行动计划」.

라. 주력산업 ①: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 12.5 계획기간 베이징의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빠르게 발전하였으나 선진 국가에 비해 여전히 산업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

- 12.5 계획기간 베이징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의 규모이상 기업 매출액은 연평균 12%씩 성장하면서 2015년 매출액은 6,231억 5,000만 위안을 기록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룸.
- 또한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제품을 생산하는 기초적인 성장단계에서 네트워크화된 소프트웨어 생산으로, 더 나아가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의 융합발전 단계로 성장을 거듭하였음.
- 그러나 산업 전반의 자주혁신역량이 여전히 부족한 편으로 특히 관련 원천기술 보유수준과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크고, 클라우드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으나 발전 초기 단계로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상태임.

■ 이에 베이징은 13.5 계획기간 △ 산업규모 확대 △ 산업 내부구조 최적화 △ 혁신창업 활력 제고 △ 산업간 융합을 통해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의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방침임.

-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의 매출액 1조 위안 이상, 연평균 성장률 10% 이상을 목표로 산업규모를 키워나가는 데 집중할 계획이며, 베이징 GRDP 중 비중을 11%까지 확대하여 전국에서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분야의 선도적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임.
 - 세부적으로는 전체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고 데이터 정보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임. 또한 연매출 1,000억 위안 기업 1개, 100억 위안 이상 기업 10개 육성을 목표로 기업의 종합경쟁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임.
- 또한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량 8만 건, 발명특허 수 1만 9,000건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주체가 되는 자주혁신체계를 구축할 방침임. 이에 더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주요 영역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규모화를 추진해나갈 방침임.

표 8. 베이징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 12.5 계획기간 주요 성과 및 13.5 계획기간 목표

구분	주요 지표	2015년	2020년
산업규모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 규모 이상 기업 매출액	6,231.5억 위안	1조 위안 이상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 규모 이상 기업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	12%(2011~15)	10% 이상(2016~20)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 규모 이상 기업 부가가치	2,372.7억 위안	-
	베이징 GRDP 대비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 비중	10.3%	11% 이상
산업구조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중 인터넷 정보서비스 비중	-	40%
기업육성	연매출액 10억 위안 이상 기업 수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 전체 기업 매출액 중 비중)	82개(53%)	-(60%)
	연매출액 100억 위안 이상 기업 수	-	10개
	연매출액 1,000억 위안 이상 기업 수	-	1개

자료: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2016. 8), 「北京市“十三五”时期软件和信息服务发展规劃」.

■ 또한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 ‘클라우드 컴퓨팅+네트워크+스마트 단말(云网端)’이 통합된 빅데이터 주도 전략 △ 소프트웨어 기반의 산업 융합 전략 △ 서비스 정보사회 건설 전략을 제시함.

- 네트워크 경제의 발전 추세에 따라 공공분야의 빅데이터 활성화, 산업간 빅데이터 통합, 소셜 빅데이터 확장을 추진하고자 함.
 - [공공분야의 빅데이터 활성화] 국가 정보화 발전 계획(政务信息化发展规划)과 연계하여 공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공정보자원의 데이터베이스를 완비할 방침임. 또한 공공 데이터의 공유와 개방을 추진하고 사회 데이터 자원과 연계하여 중점 영역의 응용수요를 충족하는 데이터 제품 및 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임.
 - [산업간 빅데이터 통합 발전] ‘인터넷+’ 전략과 연계한 산업간 각종 빅데이터의 통합·활용 촉진을 통해 기업의 생산방식 전환, 조직 구조 최적화, 경영프로세스 재조정,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추진하고 이로써 데이터 서비스 기반의 산업 혁신을 촉진할 방침임.
 - [소셜 빅데이터 확장] 모바일 소셜 네트워크의 발전에 따른 사용자 데이터(用户数据)의 잠재가치를 발굴하고 소셜 유틸리티(社交工具)를 비즈니스 플랫폼·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소셜노믹스(社群新经济, Socialnomics)’¹¹⁾라는 신경제를 형성
-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콘텐츠·서비스의 심층적인 융합을 촉진할 방침임.
 -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인터넷기업,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제조기업간 다양한 방식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종합설계 개발역량을 갖춘 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첨단제품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임.
 - [소프트웨어+콘텐츠] 문화제품 및 서비스의 디지털화 추진과 전통매체와 신흥매체의 융합발전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베이징 문화중심’ 건설에 주력할 방침임.

표 9. 소프트웨어 기반 산업융합 전략의 주요과제

주요 과제	세부 내용
‘소프트웨어+하드웨어’가 융합된 스마트 과학기술 제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제조 부문] 스마트 제어시스템, 3D 프린터, 시뮬레이션 시스템, 산업용 로봇, 수치제어와 스마트 제조 정보응용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공업화와 정보화의 융합을 적극 추진할 방침임. - [공공 부문] 교육, 의료, 양로를 비롯하여 도시행정·교통행정, 응급구조, 자원 환경, 재해 대책 등 영역의 스마트 응용 제품을 중점 개발하여 스마트 도시 건설을 추진할 계획임. - [주민소비 부문]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 가구 등 신형 IT 제품 개발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점 조성
‘소프트웨어+콘텐츠’가 융합된 정보소비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창작 혁신] 디지털 게임 및 디지털 음악 관련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인터넷 기반의 창작 서비스 플랫폼을 조성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 창작에 활력을 더할 계획임. - [디지털 콘텐츠 전파방식의 혁신]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 집적, 전송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각종 스마트 단말기에 대한 응용 솔루션 제공 - [디지털 콘텐츠 소비모델의 혁신]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공개강좌(慕课教学, 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리치미디어(富媒体),* 전자책 등 산업태의 발전을 도모
‘소프트웨어+서비스’가 융합된 신행 서비스경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부문] 스마트 감지 소자/부품(智能感知元器件), 산업용 클라우드 플랫폼(工业云平台), 운영체제(操作系统) 등 핵심 분야를 육성하고 결합 조기경보, 원격 유지보수, 품질진단 등 온라인 부가가치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여 제조업 가치사슬을 확대시켜나갈 방침임. - [서비스 부문] 전자상거래, 인터넷 금융 및 물류, 소비자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체험형 소비와 원격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널리 보급하여 서비스의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서비스 품질을 제고 - 또한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공유경제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여행, 교통, 주택, 문화·체육 등 생활영역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을 장려

주: * 리치미디어란 인터넷 광고 용어로, 기존의 단순한 배너 광고보다 풍부한(rich) 정보를 담고 있어 인터넷에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media)라는 의미이며, 사용자가 광고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변하는 광고 등 다양한 진보된 기술이 적용된 웹페이지 광고들을 지칭함(미래와경영연구소 NEW 경제용어사전, 두산백과 정의).

자료: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2016. 8), 「北京市“十三五”时期软件和信息服务发展规划」.

11) 소셜노믹스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생성되고 공유되는 가치에 관한 것으로 경제, 정치, 그리고 사람들간의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정의하였음(한국인터넷진흥원(2010. 10), 「인터넷&시큐리티 이슈, 소셜노믹스(Socialnomics)」).

- 산업, 경제, 사회 전반에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의 응용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조직구조, 생산방식, 소비모델 방식의 혁신을 주도해나갈 계획임.
- o [스마트제조 응용시스템의 발전] 중앙정부의 제조업과 인터넷 융합발전 추진을 연계하여 생산의 공급, 제조, 유통서비스의 정보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발전을 적극 추진
- o [스마트 시티 응용방안의 통합발전] 베이징 통저우(通州)에 행정부중심 건설과 연계하여 신형 스마트 시티 시범 건설을 추진하고 도시 및 사회 관리의 정밀화, 교통관리의 스마트화, 응급관리의 정보화를 목표로 함.
- o [생태환경 응용기술의 혁신발전] 대기 및 수질오염, 고형폐기물 오염 등 생태환경관리의 중점 영역에 대한 정진지 일체화 생태환경 정보 시스템을 구축·공유하고, 생태환경보호 관리·감독의 정밀화, 정책의 과학화, 서비스의 편리화를 도모할 계획임.

표 10. 서비스 정보사회 건설의 주요과제

주요 과제	세부 내용
스마트제조 응용시스템의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설계·제조 디지털화, 제품의 수명주기 관리 등 스마트 제조 공업 소프트웨어의 발전과 스마트 생산 라인, 스마트 작업장, 스마트 공장 건설 등 신형 시스템 솔루션의 혁신적인 개발을 추진 - 또한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 Physical Systems)의¹⁾ 참조 모델과 종합기술표준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임. - [산업] 산업인터넷(工业互联网)의²⁾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업계에 스마트 제조 시스템 솔루션을 보급 - 또한 네트워크와 협동 제조 등 새로운 생산모델을 도입하고 서비스업 발전과 더불어 제조업의 자동화(Automatic)를 넘어선 자율화(Autonomy) 발전을 추진할 방침임. -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기업과 제조 기업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창업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용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등 기술통합·응용 플랫폼 구축
스마트 시티 응용방안의 통합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관리] 도시관리 디지털화 플랫폼을 구축 - [사회관리] 각 부문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구 정보 데이터를 통합하여 통일된 상주인구 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주증과 호적 포인트 제도 등 새로운 인구관리제도의 효율을 높일 방침임. - [교통관리] 행정부중심에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베이더우위성항법시스템(北斗导航) 기반의 위치서비스, 스마트 교통망 등 스마트 교통기술의 응용과 보급을 촉진할 방침임. - [응급관리] 시급(市级) 응급지휘플랫폼의 업그레이드를 적극 추진하고, 영상감시(视频监控) 시스템, 식품·의약품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완비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임.
생태환경 응용기술의 혁신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환경보호 모니터링] 위성원격탐지, 무인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의 운용을 강화하고 주요 오염원, 주요 기업 및 구역에 실시간 온라인 환경 관리·감독 시스템을 구축 - [생태환경보호 정책] 정진지 생태환경보호 데이터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 - [서비스 편리화] 생태환경 데이터 개방 목록을 구축하고 환경 분석, 환경평가, 환경보호 인증, 친환경 생산 등 영역의 정보서비스 제품을 개발하여 공공 환경정보 수요를 충족

주: 1) 사이버물리시스템이란 산업장비, 가전 등 현실 속 사물을 뜻하는 물리적 세계와 인터넷 상의 사이버 세계가 네트워크로 연결, 집적된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 및 사물 자동제어가 가능해지는 시스템을 의미함(한국은행 국제경제리뷰(2016. 8. 18), 「제4차 산업혁명: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중심으로」).

2)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모든 산업의 장비들에 인터넷이 접목된다는 의미로 "사물인터넷"을 대신하여 쓰는 표현으로, GE는 사물인터넷과 달리 산업 현장의 대형 기기에서 주로 이용된다는 점을 강조해 "산업인터넷"이라는 표현을 사용함(환경 경제용어사전 정의).

자료: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2016. 8), 「北京市“十三五”时期软件和信息服务发展规劃」.

마. 주력산업 ②: 금융업

■ 베이징은 2008년 「수도 금융업 발전에 관한 의견(关于促进首都金融业发展的意见) (이하 ‘의견’)」을 발표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금융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금융업 업그레이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베이징은 ‘의견’에서 금융업 기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기능구를 중심으로 금융업의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일주·일부·삼신·사후대(一主·一副·三新·四后台)” 전략을 제시하여 추진
 - o 금융 주(主)중심구에는 국가급 금융기관 본부 위치, 금융 부(副)중심구는 국제 금융기구의 주요 집적지로 계획, 신흥금융기능구를 조성하여 금융중개서비스 환경을 최적화, 4곳의 금융서비스 원구를 조성하여 금융서비스 지원체계 확립을 도모하였음.
- 기능구를 중심으로 금융업이 발전하고 금융 조직체계가 정비되면서 2008~15년 베이징 금융업 생산액은 연평균 14.5%씩 성장
 - o 현재 베이징에는 중국의 대표적 금융기구인 ‘일행삼회(一行三会)’가¹²⁾ 모두 위치하고 있으며, 4대 국유상업은행,¹³⁾ 3대 정책성은행,¹⁴⁾ AIB, 대형 증권·보험회사 본부 등 주요 금융기관이 소재하고 있음. 2015년 기준 베이징 내 금융법인은 683개로 전국 1위

그림 15. 베이징 금융업 기능구(一主一副三新四后台)



기능구		위치
一主	금융 주(主)중심구	- 베이징 금융가
一副	금융 부(副)중심구	- 베이징 비즈니스 중심구(CBD)
三新	신흥과학기술금융기능구	- 하이텐 중관춘 서구(海淀中关村西区)
	신흥산업금융기능구	- 동 2환 교통비즈니스구(东二环路商务区)
	신흥금융기능구	- 핑타이 리저 비즈니스구(丰台丽泽商务区)
四后台	금융서비스단지	- 하이텐 다오옌후(海淀稻香湖), 차오양 진잔(朝阳金盏), 통저우 신창(通州新城), 시칭 더성(西城德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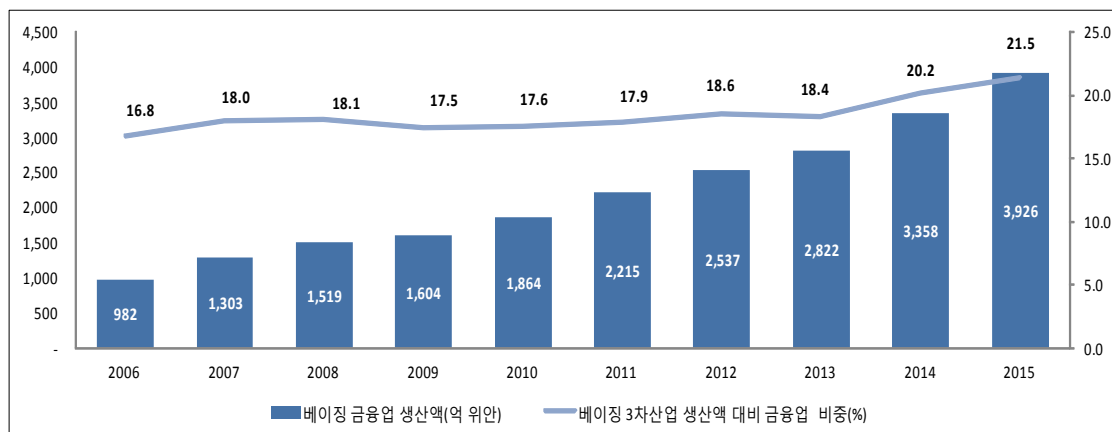
자료: 北京日报(2008. 5. 7), 「北京首次明确提出将建国际影响力金融中心城市」.

■ 금융업은 베이징 최대 서비스 산업으로 12.5 규획기간 베이징 금융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였음.

- 2015년 금융업 생산액은 3,929억 3,000만 위안으로 전국 2위를 기록하였고, 베이징 전체산업 중 생산액 1위를 달성함.
 - o 같은 기간 베이징 GRDP 중 17.1%, 3차 산업 중 21.5%를 차지하였으며, 금융업의 베이징 경제성장 기여율은 39.6%에 달함.

12) 중국 인민은행,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를 의미함.
 13)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을 의미함.
 14) 국가개발은행, 수출입은행, 농업발전은행을 의미함.

그림 16. 베이징 금융업 생산액



자료: CEIC.

■ 글로벌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은 금융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13.5 계획기간 △ 과학기술금융을 기반으로 한 혁신역량 강화 △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국제화 수준 제고 △ 일반특혜금융(普惠金融)¹⁵⁾ 발전 △ 녹색금융¹⁶⁾ 발전 △ 금융안전 강화 △ 현대보험서비스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금융업 고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방침임.

- 12.5 계획기간에는 과학기술금융 투·융자 서비스 체계 완비, 과학기술 금융기구의 제품 및 서비스 혁신 등 기초적인 과학기술금융 발전을 도모하였다면 13.5 계획기간에는 인터넷 금융 발전에 주력할 방침임.
 - 중관춘의 인터넷 서비스 플랫폼과 전문 인재 등 혁신자원을 활용하여 중국 인터넷 금융혁신의 중심지를 건설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중관춘 내 인터넷금융 종합혁신시범지역(互联网金融综合试点)을 설립하고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
 - 베이징시 인터넷금융 발전 촉진 실시방안(北京市促进互联网金融健康发展的实施办法)을 정식 공포하여 인터넷 금융발전의 정책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임.
- 베이징 내 외자금융기관의 서비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대외투자관리 서비스를 개선하여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베이징 내자금융기관의 해외 지사 설립 및 합병 등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하여 금융업의 양방향 개방을 추진
- 최근 국무원에서 「일반특혜금융 발전 계획(推進普惠金融發展規劃 2016-2020年)」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일반특혜금융을 통한 영세기업, 농민 등 일반 대중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방안을 명확히 제시함. 이와 연계하여 베이징 또한 13.5 계획기간 일반특혜금융 발전에 주력하고 특히 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
 - 영세기업을 위한 투·융자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증기관의 영세기업에 대한 융자보증 지원을 강화할 방침임.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전담하는 상업은행을 설립하고 영세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상품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농업보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적인 농업보험 보장시스템을 완비할 방침임.

15) 일반특혜금융(Inclusive Finance, 普惠金融)은 '포용적 금융'이라고도 하며, 정책 강화를 통한 원조와 시장제도의 확립을 중시해 빈곤 지역과 비중심 지역, 소기업, 사회저소득층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고 신속한 금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금융 서비스의 사용가능 정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함(KOTRA(2016. 1.6), 「일반금융특혜(普惠金融), 공익적 성격을 넘어 비즈니스 기회로 성장」).

16) 녹색금융(환경금융) 다양한 금융수단을 통해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기위한 친환경 금융제도를 의미함(KIEP 북경사무소(2008. 6. 13), 「중국의 '녹색금융'제도 현황」).

- 13.5 규획시기 사회자금이 에너지 절약, 저탄소 영역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베이징의 녹색경제, 저탄소 경제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는 녹색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o 녹색대출을 확대하여 환경보호 및 에너지 절약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관련 중점 프로젝트 추진을 대대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며, 녹색증권을 통해 환경산업의 용자구조를 개선하고, 녹색 기업의 상장을 지원할 예정임.
- 2015년 베이징은 금융업 중 보험서비스에 대한 발전의견(关于加快发展现代保险服务业的实施意见)을 별도로 발표하고, 향후 5년간 보험서비스의 사회 안정장치 역할과 경제 발전의 보조적 역할을 강화하는 업그레이드 전략을 적극 추진할 방침임.
 - [경제발전의 보조적 역할 강화] △ 중점산업 분야에 부합하는 보험 상품 개발 △ 수출보험 서비스 역량 강화 △ 보험 자금 운용을 통한 베이징 경제발전의 보조적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임.
 - o 과학기술 혁신에 부합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보험사를 지원하고, 신기술·신제품에 대한 위험보상시스템을 마련하여 기업혁신과 과학기술 성과 산업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임.
 - o 또한 전략적 신흥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 상업화에 대한 보장서비스를 확대하고, '인터넷+보험'이 결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보험서비스와 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기술의 융합 발전을 추진
 - o 지식재산권, 예술품, 공연, 영화 등 문화 산업 분야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문화산업발전기금 설립을 추진
 - o 보험자금을 채권투자, 지분투자 방식으로 인프라 건설, 정진지 협동발전 지원, 낙후지역 환경 개선 등 베이징 내 중점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
 - [대외개방] 보험업 혁신과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수도 보험업의 핵심 경쟁력을 제고
 - o 베이징 내 조건에 부합하는 국유·민간·외국자본 투자로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부동산·인프라·건강양로 분야의 전문보험자산관리기구 설립을 지원할 방침.
 - o 보험업 자산위탁관리센터, 보험자산거래플랫폼, 보험거래소, 재보험거래소 등 기초 플랫폼 구축 추진
 - o 베이징 내 보험회사의 해외업무를 지원하고 보험서비스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며, 해외 보험사의 진입을 장려함으로써 보험업의 대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임.
 - o 베이징 보험산업원(北京保险产业园)의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으로 혁신형 보험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험 정책의 싱크탱크이자 보험 디지털 특구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임.

표 11. 13.5 규획기간 베이징 보험서비스업 발전 정책

주요 정책	세부 조치
경제발전의 보조적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보험 체계 개선 - 문화 보험상품 개발 - 수출 보험서비스 강화 - 보험자금 운용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 추진
보험의 위험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사회 관리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시스템 운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혁신 - 보험을 통한 사회 위험 관리역량 강화 - 보험을 통한 재해 방지 역량 강화

표 11. 계속

주요 정책	세부 조치
보험의 민생 보장기능을 통해 사회보장 시스템 완비	-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강화 - 양로보험상품 서비스 혁신 - 건강보험서비스 다양화
도시형 현대농업서비스 발전	- 농업보험의 혁신역량 강화 - '삼농'(농민·농촌·농업) 보험수준 제고 - '삼농' 보험서비스 체계 구축
보험업 혁신과 대외개방 추진	- 현대 보험시장 체계 건설 추진 - 보험업 대외개방 수준 개선 - 베이징 보험산업원 건설 가속화
지원정책을 완비하여 수도 보험업 발전 환경 최적화	- 보험업 발전의 협력체제 강화 - 재정과 세무 지원정책 실시 - 보험시장 규범화 - 사회보험 의식 제고 - 징진지 보험업 협력 강화

자료: 北京市人民政府(2015. 9. 10), 「关于加快发展现代保险服务业的实施意见」.

4. 평가 및 시사점

가. 평가

■ 베이징은 이미 서비스업 기반의 경제구조를 뚜렷하게 구축하고 있으나, 향후 경제구조가 IT 및 혁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업이 더욱 발전하면서 3차 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심화될 것으로 평가됨.

- 1994년 GRDP 대비 3차 산업의 비중이 2차 산업을 추월한 이후 그 격차가 계속 확대, 2016년 상반기에는 3차 산업의 비중이 81.9%까지 상승하면서 중국 내 31개 성(省)급 지역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차 산업은 그 비중이 GRDP 대비 17.6%에 불과하나, 우수한 인적자원과 과학기술자원을 기반으로 제조업이 첨단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 특히 베이징시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화·정밀화·전환되는 과정에서 혁신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생산자서비스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베이징의 서비스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성장률은 점차 둔화되고 있어, 서비스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돌과구 마련을 위해 향후 5년간 △ 서비스업의 대외개방 확대 △ 소비자서비스업 품질 제고 △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에 주력하여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대외개방 확대] 중국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비스업이 가장 발달된 베이징시를 시작으로 대외개방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베이징은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선진적인 서비스 기술과 관리경험, 자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서비스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
 - 2016년 △ 과학기술 △ 인터넷·정보 △ 문화·△ 금융 △ 비즈니스·관광 △ 건강·의료 서비스의 6대 중점영역에 대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이 경과되었고,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향후 타 지역으로도 개방 정책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베이징시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서비스업 비중이 94.8%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 1분기에도 96.9%를 기록¹⁷⁾
 - 세부 업종별로 금융업이 73억 3,303만 달러로 전년대비 1,567% 증가하였으며, 과학·기술서비스는 9억 8,895만 달러로 전년대비 14% 증가,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117만 달러로 42% 증가함.¹⁸⁾
 - [소비자서비스업 품질 제고] 2020년까지 소비자서비스 제공기업의 프랜차이즈화·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하고 유통효율을 높여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서비스 수요를 확대해나갈 것으로 평가됨.
 - 농산품 소매점포의 프랜차이즈화·브랜드화 추진, 의약품과 의료기기 전문 유통체계 구축, 보건의료서비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등 생활밀착형 분야의 서비스 품질 제고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됨.
 - 원스톱 대민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요식, 미용 등 소비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매 점포와 프랜차이즈 기업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임.
 - 또한 징진지 협동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소비자서비스업의 지역협력을 강화하고, 대외개방 확대를 통해 해외의 저명한 기업과 브랜드를 유치함으로써 베이징 소비자서비스업의 활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평가됨.
- 베이징은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과 금융서비스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것으로 평가됨.
- [소프트웨어·정보서비스업] △ ‘클라우드 컴퓨팅+네트워크+스마트 단말(云网端)’이 통합된 빅데이터 주도 전략 △ 소프트웨어 기반의 산업 융합 △ 서비스 정보사회 건설의 산업고도화 전략을 통해 베이징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인터넷+’ 전략과 연계하여 산업간 빅데이터의 통합 및 활용 촉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콘텐츠·심층 융합, 경제, 사회 전반에 소프트웨어와 정보기술서비스의 응용 추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서비스업] 13.5 규획기간 베이징 금융시장은 △ 인터넷 금융 △ 일반특혜금융 △ 녹색금융 △ 현대보험서비스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여 금융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평가됨.
 - 특히 베이징은 과학기술금융을 기반으로 한 혁신을 강조하고 있어 인터넷 금융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
 - 중관춘 내에 인터넷금융 종합혁신시범지역을 마련하고, 인터넷금융 발전촉진 실시방안을 정식 공포할 예정임.

17) 人民日报海外版(2016. 5. 17), 「探索“二次开放”北京先试先得利」.

18) 北京市统计局(2016. 2. 15), 「北京市2015年暨“十二五”时期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나. 시사점

- 최근 한국의 대(對)베이징 투자는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에 편중(78.2%)되어 있는 상황이나 베이징시의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서비스업의 비중이 94.8%를 기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베이징의 서비스 수요와 산업고도화 전략에 부합하는 진출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베이징은 서비스업 고도화를 위해 6대 중점영역인 △ 과학기술 △ 인터넷·정보 △ 문화·교육 △ 금융 △ 비즈니스·관광 △ 건강·의료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대외개방을 확대할 방침으로, 외자 지분비율과 경영 자격·범위 제한을 완화하는 개방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이에 우리 기업은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의 개방조치를 활용한 선제투자와 시장선점의 기회를 모색해야 함.
 - 여행서비스와 문화공연서비스는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로, 여행서비스 분야에서는 중외합자 여행사에 허용되지 않았던 아웃바운드 관광 업무가 가능해졌고, 문화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100% 지분출자로 공연연출 중개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 베이징 서비스업의 주요 개방조치는 중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업 개방정책을 추진 중인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구와¹⁹⁾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개방도가 높은 편임.
 - 한편 베이징의 서비스업 개방조치와 한·중 FTA 서비스 분야 양허 내용을 비교해보면, 한·중 FTA의 서비스업 개방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 향후 한·중 FTA 서비스 분야 후속협상 시 베이징시가 추진하는 조치 이상의 개방도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은 베이징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업 개방확대정책 중 성과가 좋은 업종이나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 중국 각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특히 최근 1년간 실시된 서비스업 개방조치를 징진지(京津冀)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될 예정임.²⁰⁾

표 12. 베이징 서비스업 확대개방 주요 조치와 상하이 FTZ 개방조치, 한·중 FTA 서비스 분야 개방도 비교

중점 영역	세부업종	베이징 개방조치	상하이 FTZ 개방조치	한·중 FTA 서비스 양허
과학기술	과학·기술 서비스업	- 베이징 내 외자 플랜트 설계기업 최초 설립 신청 시 실적 요건 취소 - 서비스 제공 지역 베이징 내로 제한	베이징 개방조치와 동일(이하 '동일')	언급 없음.
	교통운수·창고·우정업	- 항공기 유지·보수 분야 중국 측 다수 지분 제한 철폐	언급 없음.	-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 내 항공기 보수 및 유지 합작기업 설립허용. - 단 중국 측이 그 합작투자기업의 지배주 소유 또는 지배적인 위치여야 함.
문화·교육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 문화예술 및 여가관련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특정지역에 외국인투자자의 독자 공연연출 중개회사 설립이 가능 - 서비스 제공 지역 베이징 내로 제한	동일	- 공연연출 중개회사 설립에 있어 중외합자일 경우 한국투자 49% 이하, 중외합작일 경우 중국당사자가 의사결정권을 가짐.

19) 중국은 현재 상하이(上海)를 비롯한 톈진(天津), 광둥(广东), 푸젠(福建)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서비스업 개방확대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시험구 외 지역 중에서는 베이징에서 최초로 도시 단위의 서비스업 개방확대정책을 추진하였음.

20) 經濟參考報(2016. 6. 14).

표 12. 계속

중점 영역	세부업종	베이징 개방조치	상하이 FTZ 개방조치	한·중 FTA 서비스 양허
금융	금융업	- 외자 금융기관의 독자은행 설립 가능 - 중국 민간자본과 외자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한 합자은행 설립 가능	동일	- 중외합작은행 조건부 설립.
		- 외자 기업의 건강의료 전문 보험회사 설립 가능(외국인투자 비중 50% 이내)	동일	동일
비즈니스·관광	임대·비즈니스 서비스업	- 외국인투자 신용조회회사 설립 가능	동일	언급 없음.
		- 중관춘 자주혁신시범구 내 인력중개 기관 설립 허가 - 최저 등록자본금은 12.5만 달러로 낮추고, 외국인의 지분 비중은 70% 미만	동일	언급 없음.
		- 중외합자 여행사를 설립하여 아웃바운드 관광업무(대만 제외) 가능	동일	- 한중 FTA 협정문 경제협력 파트 제 17.22조에 “한국 관광회사의 지원과 관련하여, 중국은 지원한 한국 회사가 중국 관련 법 및 규정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경우, 한국 관광 회사의 아웃바운드 관광 사업 운영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데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다”라고 명시
건강·의료	위생·보건사업	- 중외합자, 중외합자 의료기관 설립 점진적 허용 - 외국인투자 의료기관 운영심사 간소화 추진	중외합자, 중외합자 의료기관 설립 허용	- 한국 서비스 공급자는 중국의 수요에 따른 양적 제한을 조건으로, 중국 파트너와 합작투자 병원 또는 진료소 설립이 허용됨. 또한 외국인 다수 지분 허용.

자료: 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领导小组办公室(2015. 11), 「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文件汇编」; 노수연 외(2015),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KIEP 연구보고서 15-09; 国务院(2013),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문.

■ 베이징은 생활밀착형 소비자서비스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므로 이에 부응하는 서비스 시장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함.

- 베이징은 2020년까지 편의점의 프랜차이즈 점포 확대, 다양한 서비스 기능의 통합을 추진할 방침으로 관련 분야로의 기회 확보가 필요함.
 - 최근 베이징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의 편의점 시장이 호황을 맞이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음. 중국프랜차이즈경영협회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백화점과 슈퍼마켓의 매출이 각각 0.7%, 4.1%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편의점 매출 증가율은 15.2%를 기록하여 편의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 중국 편의점 시장 규모는 1,000억 위안 정도로 추산
 - 베이징은 조식 제공, 세탁물 대리수령 등 복합 서비스 기능을 갖춘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육성할 계획이므로 다양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진출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최근 국내 편의점의 자체브랜드(PB: Private Brand) 상품의 중국시장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다양한 상품개발을 통하여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해야 함. PB 상품은 보통 중소 제조업체가 생산하여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형태로 PB 상품의 수출확대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큰 의미가 있으며 이에 관련 분야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함.
- 베이징은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지역주민서비스 복합단지를 조성하여 음식, 미용 등 분야의 프랜차이즈 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임.

- 향후 5년간 50개의 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어 복합단지 내 글로벌 브랜드 진입 조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략적인 진출방안을 마련해야 함.

■ 베이징은 보험서비스에 대한 발전의견을 발표하고 보험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보험업의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보험업의 핵심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것이라 밝히고 있음.

- 이와 연계하여 베이징 서비스업 개방 확대 조치 중 기존에 제한되었던 외자기업의 건강, 의료 전문 보험회사 설립(외국 인투자 비중 50% 이내)이 가능하게 되어 관련 분야로의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필요

참고문헌

[국문자료]

- 김대중. 2016. 『지역산업분석』. 대영문화사.
- 김태훈, 손기태, 정재완, 이재호, 백유진. 2010. 『동남아 산업구조 변화와 시사점-전략산업을 중심으로』. KIEP.
- 노수연 외. 2015.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KIEP.
- 박순찬, 민은지. 2015. 『한중 FTA를 활용한 대전충남지역 서비스업 발전방안』.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안상훈. 2006. 『생산의 국제화와 산업구조 및 생산성의 변화』. KDI.
- 이문형, 김갑수, 박중구. 2007. 『한중일 제조업의 기술수준별 경쟁과 협력 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이상훈, 김주혜. 2016. 『중국 13차 5개년 계획기간의 지역별 정책방향: 환발해지역』. KIEP.
- 이상훈, 이승은, 최지원. 2015. 『중국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 분석: 베이징시』. KIEP.
- 이한득. 2016. 『한국의 산업구조, 변화 속도 줄고 집중도는 증가』. LG경제연구원.
- 정성영. 2013. 『우리나라 생산자서비스업의 생산성 결정요인: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제26권 제4호
- 홍사흠. 2015. 『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다차원적 지역산업구조 분석 연구』. 국토연구원.
- FTA 통상교섭실. 2015.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문』. 산업통상자원부.
- KIEP 북경사무소. 2008. 『중국의 “녹색금융”제도 현황』. KIEP.

[중문자료]

- 『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示范区揭牌』. 2016. 『北京日报』. (8. 6)
- 『北京:发挥金融管理功能 推动区域金融资源互补』. 2016. 『中国保险报』. (5. 17)
- 『北京首度定位金融中心 规划9大金融功能区』. 2008. 『京华时报』. (5. 7)
- 『北京首次明确提出将建国际影响力金融中心城市』. 2008. 『北京日报』. (5. 7)
- 『北京扩大开放服务业的顺义路径』. 2016. 『北京商报』. (7. 25)
- 『探索“二次开放”北京先试先得利』. 2016. 『人民日报海外版』. (5. 17)
- 国务院. 2013.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9. 27)
-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 2016. 『北京市“十三五”时期软件和信息服务业发展规划』. (8. 12)
- 北京市金融工作局北京市发展和改革委员会. 2011. 『北京市“十二五”时期金融业发展规划』. (11. 29)
- 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领导小组办公室. 2015. 『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文件汇编』
- 北京市人民政府. 2011. 『北京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3. 16)
- _____. 2015. 『北京市提高生活性服务业品质行动计划』. (7. 29)
- _____. 2015. 『关于加快发展现代保险服务业的实施意见』. (9. 10)
- _____. 2016. 『2016年北京市政府工作报告』. (2. 15)

- _____. 2016. 「北京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纲要」. (1. 28)
- 北京市统计局. 2009. 「北京市生产性服务业统计分类标准」.
- _____. 2015. 「北京市生活性服务业统计分类」.
- _____. 2016. 「北京市2015年暨“十二五”时期国民经济和社会发展统计公报」. (2. 15)

[웹사이트]

CEIC Database.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

中国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

京华时报 <http://www.jinghua.cn/>

国务院 <http://www.gov.cn/guowuyuan/>

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

北京商报 <http://www.bbtnews.com.cn/>

北京市经济和信息化委员会 <http://www.bjeit.gov.cn/>

北京市人民政府 <http://www.beijing.gov.cn/>

北京日报 <http://bjrb.bjd.com.cn/>

人民日报海外版 <http://paper.people.com.cn/rmrbhwb/html/>

中国国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

中国保险报 <http://www.sinoins.com/>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한·중 FTA <http://www.fta.go.kr/cn/>